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 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베풀면 베푼만큼 불어서 돌아와요

우리가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좀 더 지혜를 넓히고,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걸림없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불교다 하면 어렵게만 생각하시고 머리 깎은 사람만 하는 공부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일체 세계, 우주 전체에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교죠. 살아있는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바로 '교'인 것입니다. 풀 한 포기만 살아있어도 불교인데 네 종교 내 종교 따지는 것은 어찌보면 우스운 일이지요. 모두를 포함한 것이 바로 불교인데 말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또 한마음이라는 그 자체는 그냥 순

바쁘게 하려고 애쓰다보면 오히려 더할 수가 있으니 급하게 생각지도 마시고 느리게 생각지도 마세요. 그것도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니까요. 스님네들이 이 먹물 옷을 입은 뜻은 겹지도 말고 희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겹지도 않고 희지도 않은 그 도리에서 너희는 벗어날 수 있느냐라 해서 이것도 방편으로 이런 옷을 입게끔 했어요. 머리를 깎으면 또 머리가 생기고 또 머리를 깎으면 또 머리가 생기고 이러는 건 무명초를 깎으면 무명초가 또 난다는 원리를 알고 한 거죠. 끝없이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니게 바라 하는 뜻을 살펴볼 때 '항상 돌아니게 바라 된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림 · 최주현

다. 그러면 공이 뛰어서 다시 오겠죠. 그 벽에 박혀 있지 않고 반드시 되돌아 옵니다. 세계 치면 세계 올 것이고 가볍게 치면 가볍게 오게 돼 있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나도 넉넉히 못하는데 남 줄게 어딨어? 이러시지만 마음이 넉넉하면 저절로 줄 게 생기고 나도 넉넉히 돌아갑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 천도를 시키고 싶은데 형편이 안된다고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지극하면 다 되게 돼 있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한달인가 지나서 왔어요. "아유 스님, 생각지도 않는데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아주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 이분의 아버지가 자기한테 참 잘해줬던 은인이었다고 하면서 돈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 그것도 내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이지 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오는 게 있었습니까.

어떤 분이 죽어서 가 보니까 자기 공간에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집단 하나만 있더라고요. 누가 어린애를 낳을 때 집단 하나 갖다 준 것 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땐 자기 때가 돼서 나오는 거죠. 자기 존 것이 어디로 안 갑니다. 잘 살게끔 통장을 만들어 나올 수도 있고 빈 통장을 만들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사시면서 말 한 마디라도 따듯이 하고 마음으로도 남을 다치게 하지 말고 좋은 데 쓰십시오.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잘 쓰느냐 못 쓰느냐도 자기 마음 한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항상 그저 누구한테 말 한 마디를 하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축은하게 하는 말이 있고 섭섭하게 말하면 잘 말하는 게 있고 성을 내서 얼굴을 붉히고 말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살아온 모두가 생각한다면 하나도 잘못됨이 없어요. 누구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터득이 아직 안돼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사람이 100% 될 수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내가 절여온 길이 그와 같다면 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말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요, 언젠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왔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 와서

16면으로 계속

“시든 야채나 불쌍한 사람 물건은
깎지 않고 일부러 더 사줍니다
내마음 아프지 않기 위해서요”

두리째 진리로서 초월해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들 두루 살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는데도 물자를 양이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중심이 잡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하는 것도 없는 걸 배우고 있지만 사람이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는 내 의견만 고집하지 말고 남의 얘기도 잘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스님들을 공부시킬 때 삼 년을 바릿대를 돌려서 내보냈죠. 그 이유는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였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데라도 가서 부딪쳐 보고 그래서 요만한 것 하나도 진리 아님이 없음을 배우는 게 필요했던 것이죠. 지금은 빨리 살다가 빨리 죽는 세상인데 한철 살다가 가면서 이런 공부를 모르고 남들 하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한다면 또 이 세상에 등장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넘어서려면 등장을 안해도 되죠.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지만 맛을 모르고 있으니 지금 공부해야 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공부를 하면 안되죠. 스스로 우리나라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집에 다니다 보면 어린애를 업고 시들시들하게 마른 배추며 무 같은 야채를 요만큼씩 놓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 온 노인네들도 조금 조금씩 놓고 파는데 물건이 많질 않으니깐 빨리 시들까봐 그게 참 애가 타요. 그러면서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한다구요. 시든 야채를 뒤집어 봤다가 바로 봤다가 하면서요. 그런 걸 보면 깎지도 않고 그냥 삽니다. 그러면 옆에서 그러죠. 스님은 왜 시들시들한 것만 찾아다니며 사느냐고 아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분을 위해서야채를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또 보시를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단,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마음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돼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자 하는 거죠.

또 다리가 없는 사람들이 가족을 깔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파는 물건이 있

말 한마디도 섭섭지 않게 따듯이 해야 아픈사람 보고 마음 내는 것도 보살행

조. 그런 건 더 비싸지만 일부러 사 줘니다. 그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아픔을 면하기 위해서요. 비누 하나라도 사면서 그냥 누가 볼까봐 또 그 사람이 미안해 할까봐 얼마라도 더 얹어서 요렇게 뜯뜯 문쳐서 안보이게 천원짜리로 싸서 주고 오죠. 더 주면 더 쯤지 그걸 왜 깎습니까. 남이 볼 때는 '저 스님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시중돈 받아서 저렇게 쓰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몰래 그걸 주고 오느라 애를 씁니다.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내 돈이 아니라 그 때문에 더 잘 써 줘야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기 돈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이 아니구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잘 때 가져갈 거라면 자기 재산이지만 잘 때 가져가지 못

할 거라면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안그렇습니까? 죽을 때 가져 갈 수 있는 건 자기의 마음 차일 뿐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잘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남한테 잘났다는 소리 들을까 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당장 봤을 때 불쌍하니까 바로 옛날의 내 모습이니깐 내가 나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 아닌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죠.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서로 잊갈려서 내가 되고 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내려온 인생이기 때문에 그 도리를 알면 첫째, 내가 거북하고 내가 편안치 못하고 내가 괴로워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파는 사람이 나왔어요. 또는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였다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이 내 마음이 아프지 않기 위해서예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돕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 역시 돌 아치게 도와지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편하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와 같이만 생각 해라. 그러면 앞잡아 볼 것도 없고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전자에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웃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러면 그게 도리가 아니죠. 부처님 법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이 베푼만큼 베푼 만큼 반드시 몇 금질로 불어서 돌아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그대로, 나쁜 것은 나쁜 그대로 말입니다. 만약에 공을 저 벽에다 쳤다 합시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활용

씨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증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지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78

작고 하찮은 일을 무시하면 큰 일을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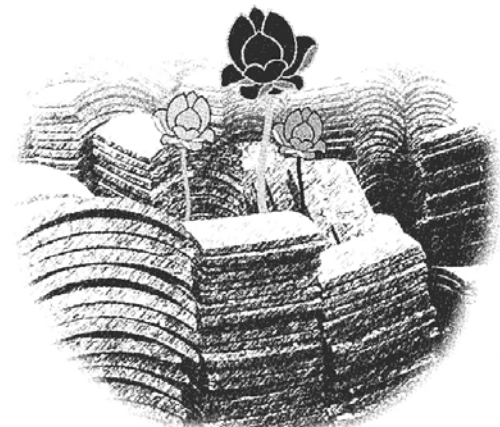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라. 닦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 부같은 사람이 되라. 무엇을 구한다, 지킨다, 버린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걸어라. 살아나가는 게 그냥 그대로인데 '했노라' '주었노라' 하면 벌써 걸리는 것이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이 우주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허공에 말뚝을 박는 것과 같다. 살아나가는 데는 여러가지 이름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름을 '나'라고 하고 '나'라고 한다면 그러치게 마련이다.”

이왕이면 좀 더 보람있고 가치있고 번듯해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다. 제 보거나 남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심히 불쾌해 하고, 해야만 할 상황이라면 마뜩치 않다 할 것이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하듯이 중요해 보이는 일, 다들 부러워하지 않는

일,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삶의 보람을 느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일이 쌓여 큰 일이 된다. 일상적이고 하찮은 일들이 모여 큰 일이 된다. 위대한 일이란 단지 작은 일들이 모이고 쌓여진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위대한 일, 중요한 일이란 극히 드물다. 아무런 보상도 따르지 않을 듯이 보이고 일상적인 것 같은 일들이라도 거기엔 결과라는 다름이 있다. 시냇물이 흘러 장강(長江)을 이루는 이치가 있다.

우리가 번듯하고 중요해 보이는 일을 선호하는 것은 그 뒤에 따라올 명성 평판 칭찬 영광을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그건 아상(我相)이다. 이기적인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고 자기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나'가 개입되면 이미 집착하고 있음이다. 무엇을 구하고 지키려는 생각이 전제된 것이다. 어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에 반연하지 않는 도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물갈



이 살고 산 같이 살라 함에 맞는다 하겠는가.

어느 누구라도 밥 짓고 빨래하는 일이 작은 일,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누구라도 하루 하루 일상에 충실한 삶을 위대하지 않다고 비하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일들이란 하찮은 것이니 내게 거창한 기회가 올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바른 삶일까.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전국에 걸 것이고 탐 세운 공덕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달마의 대답은 '무'였다. '내가 했노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붙어 있는 한 아무리 위대하고 거창한 일을 했다해도 공덕은 없다는 것이다. 그럴진대 내게 큰 일을 할 여건이 되기를 바라라는 건 공덕을 말하기 전에 어리석음 그걸일 뿐이다.

불법에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또는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게 행에서조차도 '한 사이 없이' 하라고 가르친다. 내가 했노라, 내가 주었노라

는 자기사랑이 완전히 표백된, 순수함 그 자체로 오직 행동하라고 한다.

남들이 자기를 대안하게, 좋게, 착하게 보자고 칭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공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에서 찬사와 영광을 바라지 말고 머무는 마음이 없이 무주상의 보시를 해야만 진정한 보시 공덕이 있다고 한다.

도를 알고 싶거든 가장 천한 자가 되라고 했다. 삶의 보람을 구하려고든 삶을 버리라고 했다.

일부러 천해지겠다, 버리겠다, 낮아지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일 주어진 일, 닦아오는 경계에서 오직 열심히 이기심을 앞세우지 않는 것, 보답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는 마음자체가 소중한 위대한 것이다.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라. 일상적인 일에 충실하라. 보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위대한 일, 훌륭한 공덕이란 바로 그런 일들이 합쳐진 것일뿐이다.

협천 : 故 박창원